

# 하늘과 땅의 지도

청소년용



# 박물관 속, 실학소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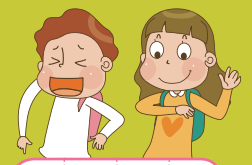
조선은 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연행사를 파견하였다. 조선시대에 청에 파견한 연행사는 500회가 될 정도로 잦은 교류를 하며 학문과 서양문물의 전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개인 사무역이 금지되었던 조선에서 연행사는 청을 통해 무역과 함께 서양문물을 수용하는 유일한 통로였다. '제1전시실' 안의 연행사길을 찾아서 빈칸에 도시의 이름을 채워보자!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천문관측기이다.



앞면은 주요한 별의 위치를 알려주는 별조견판이 있으며, 뒷면은 시간과 날짜를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유금이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의 위도까지 계산하여 만들어졌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전론을 주장한 실학자 김석문이 지은 책으로 일식과 월식을 설명한 그림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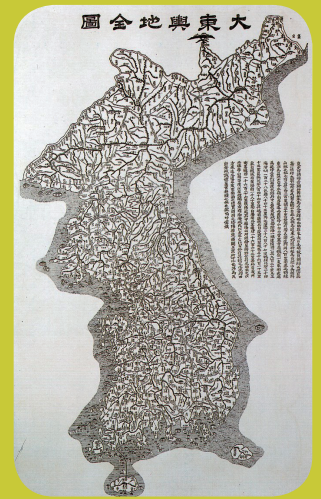
조선시대 대표적인 해시계로 시간과 절기를 그림자를 통해 알 수 있다.



정상기가 그린 지도로써 백리마다 점을 찍어 축척을 표현한 '백리척'이 사용되었다.



실학자 이증환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인문지리서로 각 지역의 지형적 특징에서부터 인심까지 다방면으로 기록하였다.



126개 목판으로 만들어져 대량 인쇄가 가능했다. 분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조선시대는 '임진왜란' 과 '병자호란' 을 겪으며 사회가 급변하였다. 그 변화에 맞추어 '실학자' 들이 등장하였는데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중농학파', '중상학파', '실사구시파' 로 나누었다. 박물관 전시를 보면서 각 학파별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내가 바라보는 사회는?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진 실학자는?

옆 칸의 실학자가 지은 저서는?

만약 내가 실학자라면?



### 중농학파

조선은 농사를 기반으로 하기에 \_\_\_\_\_ 에 대한 개혁이 시급합니다.





### 중상학파


박지원	
박제가	
서유구	




### 실사구시파

객관적 사실을 통하여 조선의 문화, 지리 등을 주로 연구합니다.

	금석과안록
	북한산 순수비 연구